

“디지털 경제의 힘은 데이터에서 나와… 패권경쟁 앞서가야”

인터뷰 데이터경제 고속도로 만드는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회장

“알리바바와 구글의 힘은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회장(비투엔 대표·사진)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데이터 패권경쟁에서 앞서가야 한다”며 이 같은 화두를 던졌다.

조 회장은 지난해 1월 열린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에 선임됐다. 3년간의 시도 끝에 조 회장이 팔을 걷어붙이면서 협회 구성에 성공했다. 2018년 8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데이터 경제를 선언한 게 계기가 됐다. 240개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는 협회는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한 대형 부정적제언 등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 회장 취임 후 첫 과제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이었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외치며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국회의원들에

데이터3법 올해 진통 끝에 통과 7개월간 절박한 심정으로 설득 끝났니 안심, 한편으론 허탈했죠

IT분야 규제장벽 여전히 높아 선급금보증보험제 등 개선 시급

한경처럼 빅데이터·AI 과정 통해 우수인재 키워 일자리 창출해야



계 끊임없이 다가 설득하다 보니 저를 피하기도 하고, 보좌관들이 전화를 거절하기도 하더군요.” 힘겹던 기억을 떠올리던 그는 “설득했다고 생각한 국회의원도 도돌이표처럼 제자리로 돌아가지길 반복할 때 좌절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데이터3법 통과가 진통을 겪은 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슈 때

문이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데이터 패권경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이 들어 멈출 수가 없었다. 데이터3법 개정안은 올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마침내 통과했다. “7개월간의 고생이 3분50초 만에 끝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편으론 안심되고 한편으론 허탈해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산고를 끝낸 조 회장은 최근 정보기술(IT)업계 이슈인 선급금보증보험제도 개선을 외치고 있다. 오래전부터 이슈가 들끓었지만 정작 본인이 경영하는 비투엔이 어느 한 해 적자를 내면서 문제점을 실감했다. 선급금보증보험제도는 건설하도급에서 비롯된 오랜 관행이다. 부도나 부실건설 등에 대비한 대응 방안이었다. 이런 관행이 IT 분야에도 적용되면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사업을 주주하고도 보증보험 한도에 걸려 사업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번칙 거래 같은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그는 “IT 분야



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손해율이 매우 낮은데도 규제 장벽이 높다”며 “보증보험 한도율을 올리고 수수료는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증보험 업무를 민간 시장으로 확대해 자율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신직 공무원으로 사회 첫발을 내디딘 조 회장은 쌍용컴퓨터와 오라클 등을 거친 IT 전문가다. 2004년 비투엔을 출범시켰다. 창업 당시 그는 절대지

분을 갖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친인척 참여도 철저히 배제하기로 결심했다. “비투엔은 ‘비긴 투 엔지니어링’의 약자지만 ‘비긴 투 엔드’란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뜻이죠.” 조 회장의 신념은 비투엔 성장의 자양분이 됐다. 창업 16년 만에 직원 수 100명, 매출 200억원을 넘겼다. 인사·복지에 대한 그의 생각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뛰어넘는다. 직원들을 데이터 장인으로 성장하게 지원하고, 그 가족까지 행복한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게 그의 경영철학이다. 성과를 공유하고 가족동반 해외여행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자녀 교육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지원한다.

조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다 보니 싸움닭이 된 느낌이 든다”며 최근 발표된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한 소견도 밝혔다. “데이터를 대량으로 입력하고 임금을 주는 식의 클라우드 위주형 사업은 지양해야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처럼 빅데이터·인공지능 전문가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인재를 키워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선순환 구조가 형성됩니다.”

최규술 기자 kysul@hankyung.com

경제신문 증권뉴스는 종목 발굴의 출발점… ‘투자의 눈’으로 바라보라

Let's Study 주식투자전략 ①

한 달에 책 한 권은 읽자

주식투자를 잘하고 싶든 방법을 모르겠고 주변에 전문가도 없다면 아주 싼 값에 전문가를 찾는 방법이 있다. 서점에 가는 것이다. 주식투자 책을 쓸 정도면 산전수전 경험자가 많이 쌓여 있다.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른 지식 습득 방법이다. 1주일에 한 번은 꼭 서점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기울이며 책에 빠져보자. 한 달에 한 권씩 재테크 책을 읽는다면 1년에 12권이다. 책마다 하나씩 새로운 투자 방법을 적어둔다면 1년에 12개, 5년이면 60개 투자 방법이 내 것이 된다. 60개 필살기라면 주식투자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베스트 신문기사 3개 뽑기

출퇴근 1시간을 알차게 증권 뉴스를 검색하는 가성비 높은 습관을 들이자. 투자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할 종목이 있어야 한다. 뉴스는 투자 분석의 출발점이자 저평가 종목을 발굴하는 정보



원이다. 출퇴근 시간 뉴스검색 습관은 그 어떤 투자 방법보다 중요하다. 석간 신문은 오전 11시30분, 조간신문은 오후 4시30분이 뉴스기사 마감시간이다. 그 시간 이후 2-3시간 동안 투자에 도움되는 양질의 뉴스가 많이 나온다. 주식시장 개장 시간인 오전 9시 이전에도 투자에 도움되는 뉴스가 많이 나온다. 실적개선, 배당, 무상증자, 증권사 추천종목 등 호재 뉴스 중심으로 매일 베스트 기사를 3개씩 뽑아보자. 뽑

아본 베스트 기사는 블로그나 노트 등에 매일 업데이트하자. 베스트 기사 3개가 별 것 아닌 듯해도 1년이면 1000여 개 기사가 내 것이 된다.

투자 안경으로 세상을 보자

일상 변화를 투자라는 안경으로 바라보면 돈 벌 기회가 생긴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전거 출퇴근이 늘었다. 정부가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니 자전거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자전거주가 급등했

경제신문 증권면 뉴스정보 한국경제신문 증권 뉴스

전체뉴스	종목분석	공시
시황	해외증시	메모
전망	채권	환율
기업분석	선물	특징주

↑
종목분석, 공시 등 주식투자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

다. 어려운 재무제표와 차트 분석만이 투자의 능사는 아니다. 뜨거운 대중의 관심에 투자하면 수익을 부른다.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기사에 수도관 관련 주를, 천만 영화 개봉에 영화 제작사를, 월드컵 경기에 앞서 스포츠 중계 회사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선풍적 인기라면 제조회사를 먼저 눈여겨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세상을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좋은 것도 좋게 보인다. 모두가 ‘No’ 할 때 혼자 ‘Yes’ 할 수 있는 선구안은 필수다. 모두가 공포스러울 때가 투자 적기요, 기대감에 들뜬 때

가 매도 시점인 역발상 투자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나온다.

나를 설득할 이유 세 가지 찾기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는 수많은 경우의 수 중 최악의 조합을 찾아 적을 물리치는 히어로 영화다.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투자 전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를 생각하고 대비책을 정해둘 필요가 있다. 주식투자는 암기과목처럼 외워서 되지도 않고, 수학 공식처럼 대입한다고 들어맞는 것도 아니다. 차트 분석이 매번 들어맞기 어려운 이유다. 주식투자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최적의 방법은 끊임없이 분석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매일 뉴스를 통해 찾은 종목을 분석하다 보면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 생긴다. 나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 세 가지 이상이 생기면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다. 그런 절차가 계속 누적되다 보면 나만의 투자 철학이 생기고 임기응변에 능한 투자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가끔은 머릿속을 지우는 습관도 중요하다. 머릿속이 복잡하면 투자에 실패한다.

생각을 잡아줄 노트를 만들자

복잡한 머릿속을 붙잡아줄 투자 노트가 필요하다. 단돈 1000원으로 마련한 노트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아직 투자 노트가 없다면 지금 당장 1000원을 꺼내 노트 한 권을 구입하자. 돈에 관련된 내용을 쓰는 노트이기엔 치부책이라 명한다.

치부책을 만들면 맨 먼저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자. 재무상태 점검만으로도 이미 부자 될 기분은 된 거다. 치부책에 쉬지 않고 일기처럼 기록을 남기자. 종목 분석, 향후 재테크 목표, 이를 위한 스케줄링 중심으로 적어두자. 매년 말에는 1년을 되돌아보고 새해 계획도 세워보자. 치부책은 나의 약속이며 자극제다. 목표와 계획이 주는 효과는 상당하다. 목표, 이를 기록하는 장부, 계획 실천 삼박자가 맞으면 투자 고수로 성공할 수 있다. 박민수 칼럼니스트(필명 샌드타이거사크)



즐거로운 소비생활 지침서

Follow Me 리뷰

매주_금_저녁 7시_패션앤

IT & LIFE

윤소희 & 지숙

BEAUTY

산다리박 & 안현모

FOOD

오영주 & 김나희

tcast | Echannel | SCREEN | DRAMACUBE | Esquire | CINE | CH | FOX | FOX | FOX